

수도권 거주 중년층의 노후의 일·여가 의식과 자립형
노인커뮤니티 입주의사와의 관계*

Attitudes Toward Work and Leisure in Later Life and Intention to Move
to Senior Community Available to Work Among 50's
in Seoul, Incheon and Kyunggido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조재순*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rofessor : Cho, Jae-So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find out relation between the attitudes toward work and leisure in later life and intention to move to senior community available to work among 50's in Seoul, Incheon, and Kyunggido. The same research questions would be revealed as the previous one done by Cho & Cho(2006). The data were the part of the survey collected from 556 respondents with questionnaire during November, 2002 by the Hong's research team(2004).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most respondents were somewhat actively preparing toward work in later life and the level of preparation differed by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age, health, and occupation. They preferred various work items specially managing facility center, raising animals and plants, and managing educating center, which were different from what current elderly workers were mainly involved in. Similarly to the work, most respondents cared for the kind of leisure activities to continue and saved money for the leisure expenses in later life. The better the economic conditions, the more actively prepared for leisure in later life. They were strongly expected to participate in public leisure facilities and programs for the elderly as a user, volunteer, and/or activist.

Over two thirds of the respondents preferred to work and live together in later life and over two out of five had intention to move to the senior community available to work. The more active in work and/or leisure in later life, the higher intention to work together and/or to move to the community. Those results generally supported the previous research showed that the needs of work and leisure in later life would be increased and varied, therefor housing for the elderly should considered work space and program as well as leisure. The further study was suggested to focus on the potential and current residents in the sample case of the comprehensive welfare town for the elderly by local administration.

▲주요어(Key Words) : 일의식(attitude toward work in later life), 여가의의식(attitude toward leisure in later life), 자립형 커뮤니티 (senior community available to work), 입주의사(intention to move)

* 주 저 자 : 조재순(E-mail : jscho@knue.ac.kr)

** 이 연구는 한국교원대학교 2004학년도 기성회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I. 서론

우리 사회가 평균수명연장과 저출산으로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를 거쳐 고령사회로 다가가면서 노후생활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노후관심 주제를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까로 보고 주거, 일, 여가를 통합한 노인주거 대안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노부모가 기혼자녀가족과 한 집에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던 때는 노인주거에 대한 요구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자녀와의 동거의식이나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이 변화되고 노인단독가구나 노인독신가구가 증가하면서 노후의 주거가 개인 차원을 넘어 주요한 국가정책 과제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2006b)에 따르면 2004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은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43.5%)보다 노인부부만 살거나(26.6%) 노인 혼자 사는(24.6%) 노인단독가구 비율(51.2%)이 더 높으며, 노인만 사는 단독가구의 거의 절반은 노인 혼자서 살고 있다. 희망하는 노후거주 형태에 대해서는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자녀(25.8%)보다 배우자와만(64.9%) 살고 싶어 하며 일부(9.2%)는 요양시설에 거주하길 희망하고 있다. 한편,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자녀와 살고 싶은 비율(50.0%)과 비슷하게 혼자(27.1%) 살거나 노인 요양시설(22.5%)에 살고 싶어 한다. 이와 같이 배우자가 있는 노부부는 물론 배우자가 없더라도 할 수만 있다면 자녀와 살기보다는 노인단독세대로 살고 싶어 하며, 대부분 노후에도 살던 곳에서 오랫동안 계속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누구나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실내외환경이 갖춰진 다양한 유형의 노인주거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비롯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재가복지시설이 있다.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노인복지주택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이 거주하는 노인양로시설과 함께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속하는데, 2005년 12월 31일 현재 노인양로 시설은 270개소, 노인복지주택은 12개소가 있다. 이에 노인요양시설(583개소)과 노인전문병원(40개소)을 합치더라도(보건복지부, 2006b) 두 노인양로·의료복지시설은 노인인구의 1.12%만을 수용할 수 있을 뿐이어서 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노인주거의 수와 종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홍형욱 팀(2004)은 건강한 노인의 주거대안으로 노인용 코하우징, 노후용 공동생활주택, 실버타운, 일터가 있는 노인커뮤니티 등과, 나아가 건강악화 시 이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노인 그룹홈 등을 다양하게 지역사회 지원서비스와 함께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터가 있는 자립형 노인커뮤니티는 건강한 노인이 모여 사는 주거단지에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과 공간이 마련되어 노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주거유형이다. 현재 취업하고 있는 노인의 69.9%가 돈이 필요해서 취업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06b), 대부분의 중년층은 미래노인들이 현재노인보다 일하려는 의욕이나 일하는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홍형욱 외, 2004). 노인이 모여 살면서 함께 일할 수 있다면 노인의 일하고자 하는 개인욕구와 노후 노동력 활용이라는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노인주거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일반적으로 여가활동을 위한 공동공간은 있으나 소득활동공간은 대체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소규모 시설 농장형 임대노인주거시설 이외에 노인주거에 생산시설과 여가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한 예는 보건복지부(2006a)가 도시인근지역에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주거문화 창조를 위해 조성하는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 시범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에는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국고지원과 민간유치로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노인전문주거단지, 생산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아직은 시범사업추진 단계에 있지만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노인의 일과 여가를 통합한 노인주거의 보급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의식이 확인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과 여가의식을 노인주거와 연관시켜 수행한 연구는 소수 있을 뿐이다(홍형욱·유병선, 2003; 조미영·조재순, 2006). 두 선행연구는 현 50대 중년층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전환되는 기간에 노후를 맞게 되는 세대로 이들의 노후에 대한의식이 고령사회의 주거문제를 대비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공통으로 50대 중년층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홍형욱과 유병선(2003)은 노후의 일태도와 여가태도를 노인공동생활주택 선호와 관련시켜 연구한 반면, 조미영과 조재순(2006)은 노후의 일의식과 여가의식을 자립형 노인커뮤니티 입주의사와 관련시켜 연구하였다. 두 연구는 연구내용에서 지향하는 노인주거유형이 다를 뿐 아니라 연구방법 가운데 일과 여가 관련 변수 구성이 다르다. 이 연구에서는 자립형 노인커뮤니티에 초점을 맞춰 선행연구(조미영·조재순, 2006)가 수행한 연구내용을 조사지역을 달리하여 반복 연구함으로써 중년층의 노후의 일·여가의식과 자립형 노인커뮤니티 입주의사와의 관계를 좀 더 명확히 밝히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수도권 거주 중년층의 노후의 일에 대한 의식은 어떠한가, 이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2) 수도권 거주 중년층의 노후의 여가에 대한 의식은 어떠한가, 이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3) 수도권 거주 중년층의 자립형 노인커뮤니티로의 입주 의사는 어떠한가, 이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노후의 일에 대한 의식, 노후의 여가에 대한 의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문헌고찰

1. 노후의 일의식

노후에 일하는 것은 소득을 얻는 수단이 되고, 일하는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며 여가를 생산적으로 활용하며 건강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김태현, 2001; 김애순, 2000; 최성재, 2000). 노년기에는 일에서 얻는 사회적 지위, 성공, 보수 같은 외적보상의 중요성은 약해지고, 일을 통해 자신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는데 중요성을 더 둔다.

65세 이상 노인의 30.8%가 일하고 있으며 이들이 취업하는 이유는 돈이 필요해서가 대부분(69.9%)인 반면, 건강 유지(9.6%), 일이 좋아서(6.5%), 시간 보내기 위해(4.9%), 능력을 느끼고 싶어서(2.6%)는 소수이다. 비취업 노인 중 17.5%가 일하기를 원하는데 이들은 동부(洞部)지역에 거주하거나 교육수준이 높거나 연령이 젊거나 남자인 경우가 더 많다(보건복지부, 2006b).

예비노인인 50대 중산층은 노후에 할 일이 있어야 하는 이유로 건강유지(31.4%)가 가장 많았으며, 그밖에 일하는 재미(20.2%), 소득보장(18.7%), 생산적 시간활용(17.7%), 사회적 인정(12.1%) 등 다양했다(홍형욱 외, 2004). 이들은 노인들의 일하려는 의욕이 현재보다 더 증가하고, 일하는 노인비율이 더 커지며, 노인이 일하는 것에 대해 일반인들이 더 긍정적으로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산, 광주, 대전 광역시에 거주하는 50대 중년층은(조미영·조재순, 2006) 자신이 노후에 할 일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노후의 일에 대한 준비정도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 남자가 학력이 높을수록, 현재 직업이 있는 경우,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이 노후의 일 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었다. 남성과 여성의 평균수명 차이가 줄어들고, 예비노인들의 경제수준과 학력이 높아지고 직업경험이 다양해진다고 가정해 볼 때 노후의 일에

대한 요구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현재 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81.7%가 농·어·축산업(53.9%)이나 단순노무직(27.8%)에 종사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06b), 고령자 취업 관련기관에서 55세 이상 고령자에게 소개되는 직업은 경비원, 주차장관리원, 물품배달원, 매표원, 주유원, 가사도우미, 간병원, 미화원 등이다(한국일보, 2006). 노인이 원하는 일자리는 노인이 실제 일하고 있거나 노인에게 소개되는 일자리와 차이가 있어 연령이 젊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직 및 준전문직, 사무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다.

노인주거단지에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중심으로 동식물 기르기, 시설운영, 교육장, 판매장, 탁아소·탁노원, 위탁받은 공동작업, 민박·펜션운영으로 나누어 노후에 하고 싶은 정도를 알아본 선행연구(조미영·조재순, 2006)에서는 각각의 일에 대해 대체로 38.0%~74.2%가 하고 싶어했으며, 하고 싶은 일은 성별, 연령, 학력, 자산, 건강상태 같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50대 중년층이 자신의 노후의 일과 관련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와 원하는 일 유형을 통해 노후의 일의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2. 노후의 여가의의식

가정과 사회의 일이나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유시간이 크게 늘어나는 노후에는 고독이나 고립, 무료함에서 벗어나 늘어난 여유시간을 활기차고 의미 있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노후의 여가는 일정하게 주어진 역할 없이 긴 시간을 막연하게 보내야 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김태현, 2001) 여가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거나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지내는 시간이 많다(통계청, 2001).

노후에 이용할 수 있는 공공여가시설로는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같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있다. 이밖에 행정기관인 읍·면·동사무소나 시·군·구청에서도 지역노인을 위한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로당을 제외한 노인여가시설은 접근성 문제가 지역노인의 이용을 낮추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경로당은 접근성은 높으나 프로그램이 별로 없는 것이 개선할 점이다(홍형욱 외, 2004).

노후의 여가에 대해 중년층은 노후의 여가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함으로써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는데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여가를 통해 심신의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보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밖에 사람들과 어울려 고독감을 줄일 수 있다거나 자원봉

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있어 노후의 여가생활에 다양한 의미를 골고루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홍형욱 외, 2004).

부산, 광주, 대전 광역시에 거주하는 50대 중년층은(조미영·조재순, 2006) 자신의 노후의 여가활동에 관심이 커서 73.0%가 현재 여가활동을 선택할 때 노후에도 할 수 있는 건지 고려하고 있으며, 62.4%는 노후의 여가활동을 위하여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들의 노후의 여가활동에 대한 준비는 주로 학력, 소득, 자산, 주관적 경제력 같은 경제관련 변수와 유의한 관련이 있다. 홍형욱·유병선(2003)의 연구에서는 중년층의 경제관련 변수가 현재하고 있는 여가활동의 적극성과 관련이 있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중년층이 적극적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은 거의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 노후의 여가에 대한 준비와 별 상관없이 원하면 이용할 수 있다. 조미영·조재순(2006)에 의하면 광역시 거주 중년층은 노후에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의사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노인을 위한 공공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을 늘리는데 적극 협력하고,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에 자원봉사 할 뜻을 갖고 있다. 이러한 공공여가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사는 경제관련 변수와 무관하며 성별, 연령, 학력, 건강, 직업유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일과 여가활동이 가능한 노인주거

노인이 되어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여 계속 활동하는 것은 젊어서 가족부양의무를 지고 일하던 때보다 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일이 여가가 되거나 여가 속에서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노후에는 일과 여가 나아가 교육의 경계가 불분명해진다. 노후가 되면 점차 활동반경이 줄어들고 이동성이 감소하여 주거공간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노인주거단지 내에서 일과 여가활동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접근성이 좋아 노후에도 오랫동안 활동을 계속할 여지가 늘어날 것이다.

일과 여가가 가능한 노인주거유형 사례로 일본 생활과학운영사가 건축하여 운영하는 개호형 유료 노인홈은 한 건물 내에 양호형 주거, 요양형 주거, 임대점포 및 공용공간이 층으로 구별되어 있다(타카하시高橋, 2006). 우리나라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양호형 주거와 요양형 주거가 같은 건물 내에 있어 양호형 주거에서 보호와 서비스를 받다가 건강이 악화되면 요양형 주거 층으로 옮길 수 있다. 아래층에 있는 공용공간에서 여가활동이 이루어지고, 임대점포에는 거주인의 요구를 고려

하여 약국, 병·의원, 보육원, 생협매장, 헬스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거주인은 45세 이상으로 하여 중·노년층이 함께 거주하며, 거주인 가운데 임대점포를 운영하거나 점포에서 일할 수 있다. 그밖에 소규모 노인주거단지에서 숙박시설이나 공방, 수제농가공품 판매장 등을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지자체가 주관하여 국고지원과 민자유치를 통해 일, 여가, 주거를 종합한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를 시범추진하고 있다.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는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을 비롯하여 노인주거단지, 생산시설, 문화·체육시설을 도시인근 농촌에 설치하여 도시은퇴노인인구를 농어촌으로 유인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인근 도시노인이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게 유도한다. 노인복지회관 같은 노인여가복지시설과 노인전문병원과 전문요양원과 같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 한 단지 내에 있음으로써 노인전용주거에 거주하는 일반노인이 여가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건강변화에 따라 익숙한 주거환경내에서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복지시설로 이동할 수 있다. 게이트볼장, 공연장, 수영장 같은 문화·체육시설 뿐 아니라 정원수 가꾸기, 펜션업, 약초재배, 장류산업 등과 같은 생산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각종 노인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의 지원과 지침에 따르고 있으나 노인전용주거단지와 문화·체육시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생산시설에서 어떤 종류의 일을 해야 하는지 혹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일과 여가활동이 가능한 자립형 노인커뮤니티는 아직 널리 알려진 노인주거유형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광역시 거주 중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조미영·조재순, 2006), 조사대상자의 거의 절반인 45.2%가 노후에 일하면서 모여 사는 노인주거가 있다면 그리로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이 입주의사는 중년층의 일반적 특성 자체보다는 노후의 일의식이나 여가의의식과 다소 관련이 있어 노후의 일에 대한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판매장이나 위탁받은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 경우, 노인을 위한 공공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을 늘리는데 적극 협력할 뜻이 있는 경우에 높았다.

고령화 사회가 되어 노인의 건강과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직업경험이 다양해지며 노후에 활용할 수 있는 여유시간이 늘어남으로써 소득이 필요해서 또는 소득보다는 활력 있게 생활하기 위해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하면서 삶의 보람을 찾으려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자립형 노인커뮤니티는 노후의 일과 여가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주거와 일과 여가를 통합하는 형태로 노인복지정책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한다. 이 연구에서는 수도권 예비노인의 자립형 노인커뮤니티 입주의사를 알아보고, 입주의사와 일·여가 의식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고령사회의 노인주거대안을 전망하기 위하여 홍형욱 팀(2004)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년층을 대상으로 지역, 성별, 주거유형을 고르게 표집한 자료의 일부분이다. 원자료는 질문지를 통해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50대 600명으로부터 2002년 11월 2일~23일에 걸쳐 수집하여 최종 566부를 정리한 것이다.

2.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이 연구에는 일반적 특성 8문항(성별, 연령, 학력, 직업, 월평균 가계소득, 총자산, 주관적 경제수준, 건강상태), 노후의 일의식 10개 문항(4점 척도로 측정된 노후의 일에 대한 준비 3문항과 7개 유형의 일을 원하는 정도), 노후의 여가의식 5개 문항(2점 척도로 측정된 노후의 여가 준비 2문항과 공공여가활동 참여의사 3문항), 4점 척도로 측정된 자립형 노인커뮤니티 입주의사 2개 문항(노후에 모여 살면서 일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 모여 살면서 일하는 노인주거가 있다면 그곳으로 이사하겠다는 의사)이 사용되었다. 노후의 여가의식과 척도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노후의 일의식 가운데 노후의 일에 대한 준비는 3문항을 합쳐 평균을 기준으로 2집단(적극적, 소극적)으로 나누었고, 7개 유형별 원하는 정도도 다소 원함과 매우 원함을 합쳐 원함으로 원하지 않음과 전혀 원하지 않음을 합쳐 원하지 않음으로 이분하였다.

자료는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개별 변수의 일반적 경향은 빈도분석,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과 여가의식 차이는 교차분석,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립형 노인커뮤니티 입주의사는 변량분석과 추후검증, 일과 여가의식에 따른 자립형 노인커뮤니티 입주의사는 t-검증을 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표 1>)으로 성별은 여자(53.1%)

가 남자(46.9%)보다 약간 많았다. 연령은 조사대상을 50대로 제한한 것으로 50대 초반이 70.9%, 50대 후반이 29.1%로 평균 53.0세이다. 학력은 고졸 및 대학중퇴(47.1%)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대졸이상(42.1%), 중졸이하(10.8%) 순이었다.

직업은 전문·관리직, 자영·비전문직, 무직 세 집단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였다. 월평균가계소득은 평균 412만원으로 400만원 미만(55.5%)이 400만원 이상(44.5%)보다 더 많았다. 총자산은 5억원 미만(59.9%)이 5억원 이상(43.1%)보다 더 많았으며 평균 5억6450만원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력은 중간이 절반이상(53.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중하 이하(24.5%), 중상이상(21.8%) 순이었다. 건강상태는 대체로 건강(46.9%)하거나 보통(45.5%)으로 허약한 경우는 7.6%이었다.

이와 같은 수도권 거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3대 광역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조미영·조재순, 2006)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비교할 때, 연령과 성별은 비슷하나 그밖에 학력, 건강, 경제 관련 상황, 건강상태는 모두 더 높은 편이다.

2. 중년층의 노후의 일에 대한 의식

1) 노후의 일에 대한 준비

노후의 일에 대한 준비는 4점 척도로 측정된 3개 문항을 통해 알아본 결과(<표 2>), 자신의 노후에 할 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93.2%, 노후에 일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겠다 76.3%, 노후에 할 일을 고려해 지금 준비하는 것이 있다 52.7%가 그런 편이거나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3대 광역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조미영·조재순, 2006)에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광역시 거주자보다 앞의 두 항목은 약간 낮으나(94.5%, 78.1%와 비교) 현재 준비는(49.2%와 비교) 다소 더 많이 하고 있는 편이다.

노후의 일에 대한 준비 세 문항을 합쳐 평균 중심으로 소극적 집단과 적극적 집단으로 나눈 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노후의 일에 대한 준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표 3>), 연령과 직업,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나머지 성별과 학력, 경제관련 변수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50대 초반이 50대 후반보다, 직업이 있는 경우가 직업이 없는 경우보다, 직업이 있는 경우는 전문·기술직과 경영·전문직이 다른 직업 종사자보다, 건강하다고 생각할수록 노후의 일에 대한 준비가 더 적극적이었다. 이 연구결과는 일을 하던 사람이 노후가 되어도 계속 일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56

일반적 특성		속 성	N(%)
성별	남		261(46.9)
	여		295(53.1)
연령 (평균 53.0세)	50대 초반		394(70.9)
	50대 후반		162(29.1)
학력	중졸이하		60(10.8)
	고졸, 대학 중퇴		261(47.1)
	대졸이상		233(42.1)
직업	전문·기술직, 경영·관리직		147(27.0)
	사무직, 상공자영업, 자유업, 판매·서비스, 기능직, 노무직, 농축산업		203(37.2)
	전업주부, 은퇴, 무직		195(35.8)
월평균 가계소득 (평균 412.8만원)	200만원 미만		71(12.9)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11(20.1)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24(22.5)
	400만원 이상		245(44.5)
총자산 (평균 5억 6450만원)	1억5천만원 미만		66(12.1)
	1억5천만원 이상~3억원 미만		110(20.2)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135(24.6)
	5억원 이상		235(43.1)
주관적 경제수준	하, 중하		136(24.5)
	중		298(53.7)
	중 상, 상		121(21.8)
건강상태	허약		42(7.6)
	보통		253(45.5)
	건강		261(46.9)

<표 2> 노후의 일에 대한 준비

N(%)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내 노후에 할일이 있어야 한다.	3.0(5)	35(6.3)	337(61.0)	178(21.2)	553(100.0)
노후에 일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겠다.	20(4.5)	238(42.8)	236(42.4)	57(10.3)	556(100.0)
노후에 할 일을 고려해 준비하는 것이 있다.	11(2.0)	120(21.7)	309(55.9)	113(20.4)	553(100.0)

<표 3> 일반적 특성과 노후의 일 준비

N(%)

일반적 특성	노후의 일에 대한 준비			χ^2
	소극적	적극적	계	
연 령	50대 초반	168(43.2)	221(56.8)	389(100.0)
	50대 후반	86(53.1)	76(46.9)	162(100.0)
	계	254(46.1)	297(53.9)	551(100.0)
직 업	- 전문·기술직, 경영·관리직	51(35.2)	94(64.8)	145(100.0)
	- 사무직, 상공자영업, 자유업, 판매·서비스, 기능직, 노무직, 농축산업	89(44.3)	112(55.7)	201(100.0)
	- 전업주부, 은퇴, 무직	108(55.7)	86(44.3)	194(100.0)
	계	248(45.9)	292(54.1)	540(100.0)
건 강 상 태	허 약	27(64.3)	15(35.7)	42(100.0)
	보 통	124(49.8)	125(50.2)	249(100.0)
	건 강	103(39.6)	157(60.4)	260(100.0)
	계	254(46.1)	297(53.9)	551(100.0)

*p<.05, **p<.01, ***p<.001

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선행연구결과(변재관, 1999; 조미영·조재순, 2006)를 뒷받침하고 있다.

2) 노후에 하고 싶은 일

노후에 하고 싶은 일은 <표 4>에서와 같이 다소 원함

과 매우 원함을 합쳐 시설운영이 75.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동식물 기르기(69.7%), 교육장 운영(69.2%), 판매장(47.6%), 위탁받은 공동작업(47.6%), 민박집이나 펜션 운영(44.6%), 탁아소나 탁노원 운영(41.2%)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거주자 연구결과(조미영·조재순, 2006)와 비교

<표 4> 노후에 하고 싶은 일

N(%)

	전혀 원하지 않음	원하지 않음	다소 원함	매우 원함	계
동식물 기르기(채소, 과일, 닭, 오리, 벌 등)	34(6.2)	133(24.1)	295(53.4)	90(16.3)	552(100.0)
판매장(전통식품, 유기농)	53(9.6)	237(42.9)	231(41.8)	32(5.8)	553(100.0)
위탁받은 공동작업	61(11.0)	229(41.4)	237(42.9)	26(4.7)	553(100.0)
교육장(특기교육·인성교육·상담, 학습지도)	38(6.8)	133(24.0)	287(51.7)	97(17.5)	555(100.0)
탁아소·탁노원 운영	58(10.5)	267(48.3)	188(34.0)	40(7.2)	553(100.0)
시설운영(도서대여점·서점, 전시관·박물관)	20(3.6)	115(20.8)	308(55.6)	111(20.0)	554(100.0)
민박집이나 펜션운영	92(16.5)	216(38.8)	203(36.5)	45(8.1)	556(100.0)

<표 5> 일반적 특성과 노후에 하고 싶은 일

노후에 하고 싶은 일	일반적 특성	원하지 않음	원함	계	χ^2
동식물 기르기 (채소, 과일, 닭, 오리, 벌 등)	성 별	남 68(26.2)	192(73.8)	260(100.0)	3.92*
		여 99(33.9)	193(66.1)	292(100.0)	
	계	167(30.3)	385(69.7)	552(100.0)	
위탁 받은 공동작업	주관적 경제수준	하, 중하 34(25.4)	100(74.6)	134(100.0)	8.01*
		중 84(28.4)	212(71.6)	296(100.0)	
		중상, 상 49(40.5)	72(59.5)	121(100.0)	
교육장 (특기교육· 인성교육·상담, 학습지도)	학 력	중졸이하 21(35.6)	38(64.4)	59(100.0)	7.59*
		고졸·대학중퇴 143(55.0)	117(45.0)	260(100.0)	
		대졸이상 125(53.9)	107(46.1)	232(100.0)	
판매장	소 득	200만원 미만 34(48.6)	36(51.4)	70(100.0)	8.29*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54(48.6)	57(51.4)	111(100.0)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55(44.4)	69(55.6)	124(100.0)	
민박집이나 펜션운영	학 력	400만원 이상 143(58.8)	100(41.2)	243(100.0)	9.01*
		계 286(52.2)	262(47.8)	548(100.0)	
		중졸이하 22(37.3)	37(62.7)	59(100.0)	
민박집이나 펜션운영	학 력	고졸·대학중퇴 93(35.6)	168(64.4)	261(100.0)	9.01*
		대졸이상 56(24.0)	177(76.0)	233(100.0)	
	계	171(30.9)	382(69.1)	553(100.0)	
민박집이나 펜션운영	직 업	- 전문·기술직, 경영·관리직 83(56.8)	63(43.2)	146(100.0)	8.35*
		- 사무직, 상공자영업, 자유업, 판매·서비스, 기능직, 노무직, 농축산업 90(44.6)	112(55.4)	202(100.0)	
		- 전업주부, 은퇴, 무직 112(57.7)	82(42.3)	194(100.0)	
민박집이나 펜션운영	주관적 경제수준	계 285(52.6)	257(47.4)	542(100.0)	10.18**
		하, 중하 57(42.5)	77(57.5)	134(100.0)	
		중 158(53.0)	140(47.0)	298(100.0)	
민박집이나 펜션운영	주관적 경제수준	중상, 상 75(62.5)	45(37.5)	120(100.0)	10.18**
		계 290(52.5)	262(47.5)	552(100.0)	

*p<.05, **p<.01

할 때, 시설운영, 교육장운영, 민박집이나 펜션운영을 원하는 비율은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동식물 기르기, 탁아소나 탁노원 운영을 원하는 비율은 다소 낮고, 판매장과 위탁받은 공동작업을 원하는 비율은 비슷하였다. 이 가운데 시설운영, 동식물 기르기, 교육장 운영은 지역에 상관없이 수도권과 광역시 거주 중년층이 모두 가장 원하는 3대 노후의 일거리로 현재 노인들이 주로 참여하는 위탁받은 공동작업이나 청소, 경비 일 등(박재관, 2002)과 차이가 크다.

노후에 하고 싶어 하는 일거리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표 5>, 동식물 기르기, 위탁받은 공동작업, 교육장, 판매장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시설운영, 탁아소나 탁노원 운영, 민박이나 펜션운영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동식물 기르기는 여자보다 남자가, 주관적 경제수준이 중상이상인 경우보다 중이나 중하 이하인 경우에 더 원하

고 있었다. 위탁받은 공동작업은 학력이 중졸이하이거나, 월평균가계소득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가 각각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선호하고 있었다. 교육장은 대졸이상이 더 원하는 반면, 판매장은 자영·비전문직 종사자나 주관적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노후의 여가에 대한 인식

1) 노후의 여가활동에 대한 준비

중년층이 자신의 노후의 여가활동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73.3%가 현재 여가활동을 선택할 때 노인이 되어서도 계속 할 수 있는 것인지 고려하고 있으며, 63.7%는 노후에 원하는 여가활동을 하기 위해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이 결과는 광역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73.0%, 62.4%)와 매우 비슷한 것

<표 6> 노후의 여가에 대한 준비

N(%)

	예	아니오	계
여가활동을 선택할 때 노년을 고려하고 있다	403(73.3)	147(26.7)	550(100.0)
노후여가활동을 위해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	351(63.7)	200(36.3)	551(100.0)

<표 7> 일반적 특성과 노후여가준비

일반적 특성		예	아니오	계	χ^2
여가활동을 선택할 때 노후를 고려한다.	하, 중하	88(65.2)	47(34.8)	135(100.0)	8.23*
	중	217(73.8)	77(26.2)	294(100.0)	
	중상, 상	98(81.0)	23(19.0)	121(100.0)	
	계	403(73.3)	147(26.7)	550(100.0)	
학 력	중졸이하	35(58.3)	25(41.7)	60(100.0)	12.23**
	고졸, 대학 중퇴	147(57.4)	109(42.6)	256(100.0)	
	대졸 이상	168(72.1)	65(27.9)	233(100.0)	
	계	350(63.8)	199(36.2)	549(10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36(52.2)	33(47.8)	69(100.0)	24.91***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57(51.4)	54(48.6)	111(100.0)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73(59.8)	49(40.2)	122(100.0)	
	400만원 이상	183(74.7)	62(25.3)	245(100.0)	
자 산	계	349(63.8)	198(36.2)	547(100.0)	29.17***
	1억5천만원 미만	35(53.8)	30(46.2)	65(100.0)	
	1억5천만원 이상~3억원 미만	48(44.0)	61(56.0)	109(100.0)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79(59.4)	54(40.6)	133(100.0)	
주관적 경제력	5억원 이상	182(77.4)	53(22.6)	235(100.0)	29.80***
	계	344(63.5)	198(36.5)	542(100.0)	
	하, 중하	62(46.6)	71(53.4)	133(100.0)	
	중	193(65.0)	104(35.0)	297(100.0)	
주관적 경제력	중상, 상	96(79.3)	25(20.7)	121(100.0)	29.80***
	계	351(63.7)	200(36.3)	551(100.0)	

*p<.05, **p<.01, ***p<.001

으로 중년들이 노후의 여가활동에 관심을 크게 갖고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후의 여가활동에 대한 준비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주로 경제관련 변수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표 7>),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에도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면서 여가활동을 선택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노후의 여가활동을 위한 경제적 준비는 학력, 월평균 가계소득, 자산,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이상인 경우, 월평균가계소득은 400만원 이상인 경우, 자산은 5억 이상인 경우, 주관적 경제 수준이 높은 경우가 각각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노후의 여가활동을 위해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이상에서 볼 때, 노후의 여가활동 준비는 주관적 경제수준을 포함해 가계소득과 자산이 평균 이상인 중년층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노후의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의사

시설여가시설의 이용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노인을 포함하여 대다수 노인은 지역사회나 주거단지에서 제공하는

공공여가시설에 대한 수요자라고 보고, 공공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노후의 여가활동 참여의사를 알아보았다(<표 8>).

조사대상자의 72.8%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의사를 갖고 있으며, 64.0%는 지역사회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에 자원봉사할 의사가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63.0%는 지역사회 내에 노인을 위한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을 늘리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참여의사는 광역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조미영·조재순, 2006) 결과(70.7%, 58.9%, 61.5%와 비교)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노인을 위한, 노인에 의한 공공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야 하며, 그렇게 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노후의 여가활동 참여의사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표 9>), 성별과 학력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을 뿐 다른 변수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노후에 공공여가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8> 노후 공공여가활동에 대한 참여의사

N(%)

	예	아니오	계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이다	404(72.8)	151(27.2)	555(100.0)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시설과 프로그램에 자원봉사 할 것이다	355(64.0)	200(36.0)	555(100.0)
지역사회 노인 여가시설과 프로그램 확충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	349(63.0)	205(37.0)	554(100.0)

<표 9> 일반적 특성과 노후 공공여가활동 참여의사

일반적 특성		예	아니오	계	χ^2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여가시설과 프로그램 이용	성 별	남 176(67.4) 녀 228(77.6) 계 404(72.8)	85(32.6) 66(22.4) 151(27.2)	261(100.0) 294(100.0) 555(100.0)	7.15**
	학 력	중졸이하 48(81.4) 고졸·대학 중퇴 198(75.9) 대졸 이상 157(67.4) 계 403(72.9)	11(18.6) 63(24.1) 76(32.6) 150(27.1)	59(100.0) 261(100.0) 233(100.0) 553(100.0)	6.88*
	학 력	중졸이하 27(45.8) 고졸·대학 중퇴 169(65.0) 대졸 이상 151(64.8) 계 347(62.9)	32(54.2) 91(35.0) 82(35.2) 205(37.1)	59(100.0) 260(100.0) 233(100.0) 552(100.0)	8.28*

*p<.05, **p<.01

성별에 따라 공공여가시설과 프로그램 이용의사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았다. 학력이 낮을수록 공공 여가시설과 프로그램 이용 의사는 더 많이 갖고 있는 반면, 지역사회 노인 여가시설과 프로그램 확충에 적극 협력할 의사는 낮게 나타났다. 공공여가시설과 프로그램에 자원봉사 할 의사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연령이 50대 초반이고 건강할수록 자원봉사 할 의사가 높게 나타난 광역시 거주자 연구결과(조미영·조재순, 2006)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4. 자립형 노인커뮤니티 입주의사

자립형 노인커뮤니티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먼저 노후에 모여 살면서 일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일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절반 이상(56.2%)이 그렇다고 하였으며, 매우 그렇다(13.7%)를 합쳐 69.9%가 노후에 개별적으로 일하는 것보다 모여 살면서 일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표 10>).

이보다 적극적으로 노후에 일하면서 모여 사는 노인주거가 있다면 그곳으로 이사 하겠느냐에 대해서는 그런 편이다(36.9%)와 매우 그렇다(7.2%)가 44.1%로 나타났다. 이는 광역시 거주자의 입주의사(45.2%)와 비슷한 비율로써, 중년층의 45% 내외가 자립형 노인커뮤니티로 이사할 의사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모여 살면서 일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일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은 일반적 특성 가운데 소득과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성별, 학력, 직업, 경제관련 변수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소득은 200만원 미만인 경우, 건강상태는 보통이나 건강한 경우에 각각 다른 경우보다 모여서 일하는 것을 더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었다.

일하면서 모여 사는 노인주거가 있다면 그곳으로 이사 하겠다는 의사는 직업과 자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직업은 현재 직업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특히 전문·관리직 종사자의 입주의사가 더 높았다. 자산은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3억 이상인 경우보다 입주의사가 더 높았다. 그밖에 모여서 일하는 것이 낫다는 의사

<표 10> 자립형 노인커뮤니티 입주의사

N(%)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노후에 모여 살면서 일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낫다	15(2.7)	151(27.3)	311(56.2)	76(13.7)	553(100.0)
노후에 일하면서 모여 사는 노인주거가 있다면 그곳으로 이사 하겠다	73(13.2)	237(42.7)	205(36.9)	40(7.2)	555(100.0)

<표 11> 일반적 특성과 자립형 노인커뮤니티 입주의사

일반적 특성	노후에 모여 살면서 일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 보다 낫다				일하면서 모여 사는 노인주거가 있다면 그곳으로 이사하겠다.			
	N	M	F	Scheffe	N	M	F	Scheffe
직업	전문·기술직, 경영·관리직				146	2.48		b
	사무직, 상공자영업, 자유업, 판매·서비스, 기능직, 노무직, 농축산업				203	2.43	3.104*	ab
	전업주부, 은퇴, 무직				195	2.28		a
소득	200만원 미만	71	3.08					b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09	2.82	4.851**				a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24	2.81					a
	400만원 이상	244	2.73					a
자산	1억5천만원 미만				65	2.66		b
	1억5천만원 이상~3억원 미만				110	2.54	9.497***	ab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134	2.29		a
	5억원 이상				234	2.27		a
건강상태	허약	42	2.57					a
	보통	251	2.86	3.185*				b
	건강	260	2.80					ab

*p<.05, **p<.01, ***p<.001

<표 12> 노후의 일과 여가의식 및 자립형 노인커뮤니티 입주의사

노후의 일과 여가 의식			노후에 모여 살면서 일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낫다			일하면서 모여 사는 노인주거가 있다면 그 곳으로 이사하겠다.			
			N	M	t	N	M	t	
노후 일의식	노후의 일에 대한 준비	소극적	253	2.68	-3.896***	254	2.13	-7.175***	
		적극적	296	2.91		297	2.60		
	동식물 기르기	원하지 않음	166	2.67	-2.955**	167	2.23	-2.867**	
		원함	383	2.87		384	2.45		
	판매장	원하지 않음	289	2.76	-1.831	290	2.31	-2.270*	
		원함	261	2.87		262	2.46		
	위탁받은 공동작업	원하지 않음	288	2.65	-5.803***	289	2.19	-6.174***	
		원함	262	2.98		263	2.60		
	노후에 하고 싶은 일	교육장	원하지 않음	171	2.71	-2.319*	171	2.26	-2.508*
			원함	381	2.86		383	2.44	
	탁아소·탁노원 운영	원하지 않음	324	2.68	-5.285***	325	2.20	-6.545***	
		원함	226	2.99		227	2.64		
	시설운영	원하지 않음	134	2.68	-2.539*	135	2.16	-3.627***	
		원함	417	2.85		418	2.45		
민박·펜션	원하지 않음	306	2.73	-3.227***	308	2.23	-5.073***		
	원함	247	2.91		247	2.57			
노후의 여가활동 준비	노후여가활동을 위한 경제적 준비	예	350	2.82	.519	351	2.44	2.321*	
		아니오	198	2.79		199	2.27		
노후 여가의식	노후의 여가활동 참여의사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	예	401	2.86	2.658**	403	2.45	3.176**
			아니오	151	2.68		151	2.21	
	노후의 여가활동 참여의사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에 자원봉사	예	352	2.86	2.164*	354	2.47	3.582***
			아니오	200	2.73		200	2.22	
		노인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을 늘리는데 적극 협력	예	346	2.86		2.219*	348	
	아니오	205	2.72	205	2.25				

*p<.05, **p<.01, ***p<.001

와 유의한 관련이 나타난 소득과 건강 변수는 자립형 노인커뮤니티로 이사하겠다는 입주의사와도 p<.1 수준에서 (표 생략)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노후의 일의식과 노후의 여가의식에 따른 자립형 노인 커뮤니티 입주의사는 모두 일관성 있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표 12>). 노후의 일에 대한 준비가 소극적인 경우보다 적극적인 경우에, 노후에 각 일거리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보다 하고 싶어 하는 경우에 노후에 모여 살면서 일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과 나아가 일하면서 모여 사는 노인주거가 있다면 그곳으로 이사하겠다는 의사가 둘 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와 같은 경향은 노후여가의식에서도 나타났는데, 노후여가활동을 위해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공공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의사가나 이에 자원봉사 할 의사 또는 이의 확장에 협력할 의사가 있는 경우가 각각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노후에 모여 살면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나아가 자립형 노인 커뮤니티로 입주

할 의사를 더 많이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은 노후의 일과 여가 의식에 따른 입주의사 차이는 광역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조미영·조재순, 2006) 결과에서 보다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자립형 노인커뮤니티 입주의사가 노후의 일과 여가의식과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VI. 결론 및 제언

이 연구 목적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50대 중년층의 노후의 일 및 여가의식과 자립형 노인커뮤니티로의 입주의사를 알아 보고, 일과 여가의식이 자립형 노인커뮤니티 입주의사와 관련이 있는가를 밝히는데 있다. 이 연구는 부산, 대구, 광주광역시 에 거주하는 중년층을 대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조미영·조재순, 2006)와 동일한 연구문제를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반복 연구한 것이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예비노인을 통해 노인주거를 전망하기 위해 성별, 연령, 주거유형, 주거지역을 고르게 표집한 홍형욱 팀(2004) 연구자료의 일부분으로 분석 대상사례는 566부이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선행연구(조미영·조재순, 2006)에 비해 50대 초반이 다소 많은 반면, 학력, 직업, 월평균가계소득, 총자산, 주관적 경제수준이 더 높으며 건강은 좀더 좋은 상태이다.

수도권 조사대상자들은 노후의 일에 대해 대체로 적극적인 의식을 갖고 있으며, 절반정도는 현재 노후에 할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노후의 일 준비는 성별이나 경제관련 변수와는 무관한 반면, 연령이 낮고, 건강하고, 현재 직업이 있는 경우 특히 전문·관리직 종사자가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노후에 하고 싶은 일은 조사대상자의 최저 40% 이상부터 최고 75% 이상이 설문에서 제시한 7가지 유형의 일거리를 고르게 원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순위가 가장 높은 시설운영, 동식물 기르기, 교육장 운영은 광역시 거주 중년층도 가장 선호하는 일거리이며, 현재 노인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위탁받은 공동작업은 선호순위가 중간보다 낮았다. 민박·펜션을 제외한 노후에 원하는 일거리는 교육장이나 시설운영은 고학력, 판매장은 비전문관리직, 동식물 기르기는 남성, 위탁받은 공동작업은 저학력이나 저소득이 더 원하는 경우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기서 예비노인은 자신의 노후에 할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세대로써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다양한 직업배경을 가진 노인층이 증가한다고 볼 때, 이들이 원하는 노후의 일거리가 개인특성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과 현재 선택 가능한 노인 일거리보다 훨씬 다양하고 전문화된 일거리에 대한 요구를 갖고 있으며 일부는 노후에 할 일을 미리 준비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중년층은 노후의 여가활동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3/5 이상은 이를 위해 현재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 노후의 여가활동준비는 주관적 경제수준을 비롯하여 가계소득과 자산이 평균이상인 집단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노후여가활동준비와 경제관련 변수와의 관계는 광역시 거주 중년층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일치한다.

예비노인은 노후에 지역사회의 공공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그곳에서 자원봉사 할 뿐 아니라 노인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을 확대하는데도 적극 참여할 의사를 갖고 있다. 공공여가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참여의사는 여성과 저학력 집단의 이용의사가 높으며 저학력집단의 확대참여의사가 낮다는 점은 제외하면 직업이나 경제관련 변수 같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없다. 수도권 중년층의 거의 2/3는 일반적 특성과 상관없이 노인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을 위해 자원봉사 할 의사를 갖고 있다는 점은 노인여가프로그램 운영에 노

인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공공여가시설과 프로그램 수요 증가는 노후의 여가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미래노인을 포함하여 특정 노인에 한정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나아가 노인 스스로 노인여가시설과 프로그램 운영과 확대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늘어나는 예비노인의 공공여가시설과 프로그램 이용과 참여 확대를 수용하고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인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제도마련이 요청된다.

자립형 노인커뮤니티에 대해 수도권 조사대상자 약 70%는 노후에 모여 살면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며, 2/5 이상은 그런 노인주거가 있다면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다. 성별과 학력에 상관없이, 모여서 일하는 것을 소득이 낮거나 건강한 경우에 선호하고, 일하면서 모여 사는 노인주거의 입주의사는 직업을 갖고 있거나 자산이 적은 경우에 높다.

노후의 일의식과 여가의식은 노후에 모여 살면서 일하는 것에 대한 선호와 일하면서 모여 사는 노인주거로의 입주의사와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다. 노후의 일의식을 나타내는 노후의 일 준비가 적극적이고, 노후에 특정한 일을 하기 원하는 경우에 자립형 노인커뮤니티로의 입주의사가 더 높다는 것은 점차 노후의 일의식이 증가한다고 볼 때 노인주거 예비 거주자의 일요구를 파악하고 단지 내에 원하는 일에 맞는 공간이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노후의 여가의식도 노후여가활동을 위해 경제적 준비를 하고, 공공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자원봉사하며 확대에 협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자립형 노인커뮤니티로의 입주의사가 더 높다는 것은 미래노인의 학력과 경제수준이 높아짐으로써 노후의 여가의식이 커지고 따라서 자립형 노인커뮤니티로의 입주의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자립형 노인커뮤니티의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은 자체 시설에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이루어지는 여가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겠으며 나아가 단지 내에 공공여가시설을 유치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거주자는 프로그램 이용 뿐 아니라 진행을 맡아 운영할 수도 있겠다. 노후의 일의식과 여가의식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인종합복지타운, 노인공동생활주택 등과 같은 노인을 위한 주택 단지에는 노인 거주자의 여가활동뿐만 아니라 시설운영, 동식물 기르기, 교육장 운영 같은 노후의 일에 대한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립형 노인커뮤니티에 살면서 노인거주자가 원하는 일과 여가활동을 함으로써 노인 자신이 활기차고 보람된 생산적 자립생활을 할 수 있으며, 입주민 사이 나아가 입주민과 지역사회 이웃과 상호교류가 활발해져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적으로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노후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부처별로 노인의 일, 여가, 주거를 독립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대한주택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농촌형 공동주거단지에 주민의 소득과 여가활동을 위주로 농촌진흥청(2005)이 주도하는 장수마을사업을 연계하여 일과 여가와 주거를 통합하는 방안도 관심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결과는 광역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조미영·조재순, 2006) 결과와 세부적인 관련변수에는 다소 불일치하는 점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예비노인의 노후의 일의식과 여가의식이 높고, 노후의 일과 여가의식이 자립형 노인커뮤니티 입주의사와 유의한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예비노인이 원하는 일과 여가와 주거를 통합한 자립형 노인커뮤니티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서천군, 2005)가 시범운영하는 노인종합복지타운을 사례 조사하여 일과 여가와 주거 생활이 이루어지는 각 공간의 이용 실태 및 요구 등을 파악하는 후속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접 수 일 : 2006년 05월 15일
- 심 사 일 : 2006년 06월 14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08월 09일

【참 고 문 헌】

김애순(2000). 은퇴와 노년기 일의 의미. 노인복지정책연구, 17(노인취업의 현황과 과제), 163-189.

김태현(2001). 노년학. 교문사.

농촌진흥청(2005).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계획.

박재관(2002). 노인 취업의 현황과 과제. 노인복지정책연구총서, 25(고령자 취업과 자원봉사활동), 7-77.

변재관(1999). 노인인력 활용의 활성화 방안-서울시 노인을 대상으로. 한국복지연구, 겨울호, 91-131.

보건복지부(2006a). 농어촌복합노인단지 조성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2006b). 2006년 노인복지시설현황.

서천군 사회복지과(2005). 서천군 노인종합복지타운 건설.

조미영·조재순(2006). 중년층의 노후의 일과 여가에 대한 의식과 자립형 노인커뮤니티 입주의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17(1), 155-164.

최성재(2000). 노인취업의 실태와 정책방향. 노인복지정책연구총서, 17(노인취업의 현황과 과제), 7-41.

타카하시 에이오(高橋 英與, 2006). 일본의 개호보험과 실버

산업의 동향, 2006년 제 1회 한국주거학회 심포지엄 자료집(한국과 일본의 고령자 주거 및 복지), 101-120.

통계청(2001). 1999 생활시간종합분석 사업보고서.

한국일보. 어르신 취업 지자체가 도와요. 2006. 2. 21.

홍형욱·유병선(2003). 노후의 일·여가 태도에 따른 노인공동 생활주택 선호경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5), 13-24.

홍형욱·이경희·최정신·김대년·조재순·권오정(2004). 노후에는 어디에서 살까. 미래인력연구원·(주)지식마당.